

## 서울지부 강북의원, 용두2동에 개설

지역주민 위한 건강검진 개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가 등대문구 용두2동에 "강북의원"을 개설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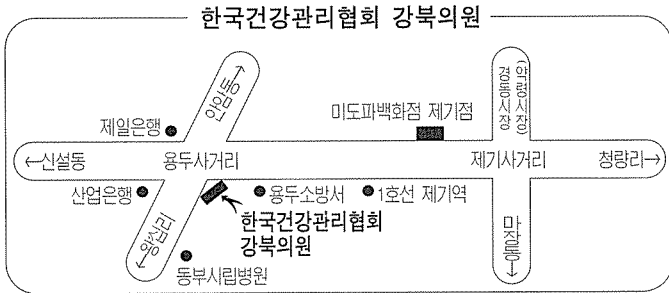
검진을 개시했다. 강북의원은 강동구 천호동에 있던 강동의원을 이전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지부는 강북의원 개설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전개했다.(관련기사 6쪽)

강북의원의 위치 및 주소,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주소 : 서울시 등대문구 용두 2동  
119-1 용운빌딩 2층  
전화 : (02)921 - 0476~7  
FAX : (02)921 - 0405



### 중국 보건관계자, 건협 방문



馮正(Feng-Zheng) 중국 예방의학과학원 기생충병 연구소장, 李根平(Li, Genping) 중국예방의학과학원 과학기술과 부교수를 비롯한 중국 보건관계자 8명이 한·중 기생충관리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내한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는 ▲기생충관리 요령 ▲보건계몽 교육 방안 ▲보건정책 수립에 대한 고찰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중국측에 전수하는 한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기생충 감

염을 저하에 기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등이 토의되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기생충 관리 현황과 보건의료현황 시찰을 위해 건협 경기·부산·대구 지부를 견학한 후 11일 출국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94년부터 구체화된 한·중 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생충관리분야의 교류 촉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11월, 12월도 중국 보건관계자들이 방한하여 각종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

### 건협직원 15명, 일본연수

한국건강관리협회 배정구 홍보부장, 박철동 감사실장, 남상도 전북지부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15명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 일본국 연수단 일행은, 동경예방의학사업중앙회, 오오사가 예방의학협회 등 일본 보건기관을 방문해 일본의 보건의료 현황 및 국민건강관리 시스템을 돌아본 후, 한·일간 보건의료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를 위한 논의도 가졌다.

### 경남지부, 미용협회원 건강 교육



건협 경남지부는 지난 9월 10일 미용사협회 회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강연회를 가졌다. 마산 올림픽 국민회관에서 있었던 이 강연회에서 유봉옥 박사는 "여성에게 흔한 질환"에 관한 강의를 실시했다.

#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 창립 32주년 기념,

무료검진 등 다양한 행사 마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여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11월 7일, 서교호텔 별관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있을 이 심포지움에서는 건강관리사업의 평가(제 1부)를 주제로 김상인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국내 건강관리사업의 평가와 외국사례에 대하여, 21세기를 향한 건강관리와 국민건강증진의 방향(제 2부)을 주제로 임한중 회장이 좌장을 맡아 국민건강관리사업의 방향과 국민건

강증진의 구체적 방안, 국가 보건정책방향 등에 관해 관련학자 등이 각각 발표하는 한편 관련 주제에 관한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폐널토의(제 3부)를 이순형 부회장(서울의대 학장)을 좌장으로 하여 주제발표 교수와 건협 성정웅 사무총장이 참석·전개한다.

임한중 회장, 성정웅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보건복지부관계자, 관련학계 교수, 유관기관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 심포지움

에서는 지금까지의 국내 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보건단체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또 창립 3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할린 동포 영주자 및 재택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무료 건강검진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다.

## '96. 전국 보건교육담당자 교육

오는 11월 13일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96년도 전국 보건교육담당자 교육을 오는 11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강원도 홍천 대명 콘도에서 갖는다.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보건교육담당자에 대한 보건관련 직무교육을 통해 국민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전국 시·도 보건과, 시·군·구 보건소, 보건지소의 보건교육담당자(국민건강증진법령 담당자 포함), 보건복지부 및 건협 시·도지부 보건교육 담당자 등 165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활성화 방안, 제도적 접근 등 보건교육방안에 대한 관련 교수들의 강의와,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온 국민건강증진법 및 세부 사업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교육 및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선 보건교육담당자의 전선도모를 위한 “화합의 밤”, 일선보건교육사례 발표 및 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 부산·대구지부 AIDS 예방 홍보사진 전시회

건협 부산지부와 대구지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 중에 부산광



역시·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AIDS 예방 홍보사진 전시회를 각각 개최했다.

전 국민의 AIDS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보건 의식 고취를 위해 열렸던 이 사진 전시회에서는 AIDS의 증상·원인, 예방법 등에 관련된 사진이 전시되었으며, 관련 유인물이 배부되었다.